

2층 양옥 노란 옷 입고 자립형 예술공간 변신



자립형 문화공간 'RGA'를 운영하는 조은애·박현진·김은와·백선경씨.(왼쪽부터)



광주시 북구 우산동 주택가에 자리한 'RGA'

지역 젊은 작가 4명이 운영하는 광주 우산동 대안공간 'RGA'

광주시 북구 우산동 광주병원 뒷골목으로 들어서면 노란색으로 외관을 꾸민 양옥집이 눈에 띈다. 지역 젊은 작가들이 운영하는 대안공간 'RGA(Real Gwangju Artists)'다. 작가들이 지난해 제작한 작품 '기억의 계단'을 올라 2층에 자리한 'RGA' 문을 두드렸다. 계단 하나씩을 오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짜들이 하나 둘 새겨져 있다.

흔히 보는 가정집이 소박한 갤러리로 변신했다. 방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두 개의 전시실을 만들었다. 전시실을 구분하는 건 커튼이다.

RGA는 완전한 자립형 예술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원금 등에 의지하고 있지만 RGA는 '철저한'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다. 10여년 전 광주시 동구 소재동에 문을 열었고, 3년 전 이곳으로 옮겨왔다.

이곳은 네 작가가 함께 쓰는 작업실이자, 갤러리이며 예술 워크숍, 베품시장 등이 열리는 문화예술 교육 공간이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은와(36), 같은 학교 문화미디어학과 출신인 조은애(35), 전남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영상과 회화 작업을 하는 박현진(37), 철학 전공 백선경(24)씨가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 백씨는 RGA가 운영하는 드로잉 교실 등에 참여했다 아예 멤버가 됐다. 이 곳에서 전시를 하는 작가는 공간을 마음껏 바꿀 수

전시·예술 워크숍·베품시장 열어 4월 1일까지 김은와 작가 개인전 '영화 Talk' '철학 엿보기' 등 운영

있다. 오는 4월1일까지 개인전 '회화적 반성'전을 여는 김은와 작가는 MDF판을 모두 뜯어내고 시멘트와 벽돌을 노출시킨 후 흰색 공간으로 전시실을 꾸몄다.

RGA는 매주 토요일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RGA가 선정한 이달의 영화를 보고 특정한 주제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영화 Talk', 어려워보이는 철학 책을 설명과 함께 읽어보는 '철학 엿보기', RGA가 선정한 이달의 작가 작품을 소개받고 그들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아티스트 이야기', 드로잉·조각 등 다양한 미술 워크숍으로 꾸려지는 'Art 워크숍' 등이다. 3월에는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고 영화 '공각기동대', 작가 안드레이 브로블레스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RGA는 또 다양한 주제로 베품시장을 열어 거대 전시에 대한 비판을 담은 '보이콧 비엔날레'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가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공간을 무료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공모전을 열어 지난해에는 'My Story' 공

모에 당선된 박혜영·박지현 작가가 전시회를 열었다. 대안예술시장 1기 참여작가였던 김은와씨는 지원프로그램이 단기로 진행돼 작업의 연속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게 늘 아쉬웠다. 또 전시회 개최를 위한 갤러리 대관료가 비싼 것도 부담이었다.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낸 조 작가와 힘을 합쳐 소재동에 공간을 열었고 지금 동지를 틈 곳은 조은애 작가의 집이다.

"대학 4학년 때부터 전시를 했는데 개인 작업실을 갖는 게 로망이었지요. 하지만 작업실을 운영하는 게 만만찮은 일이었어요. 작지만 의미있는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기획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면 좋겠다 싶었죠. 작가 생활의 경험을 다양한 프로젝트로 꾸러가고 있습니다."(김은와)

이번 전시에는 흥미로운 '비밀'이 있다. 1전시실에서 걸린 작품들과 2전시실에서 만나는 영상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숨어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 작품에는 예술가적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며 "그 반성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자야를 등장시켰다"고 말했다.

"예술가로서 작품 활동과 삶까지도 완전 자립을 꿈꿨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공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 가고 싶습니다." 멤버들의 소박한 꿈이다. 전시 관람 이후 3시~7시. cafe.naver.com/rgartist, www.facebook.com/rgartist2, 문의 010-2569-22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류영도 작가 초대전 30일까지 S갤러리

붉은색과 초록이 어우러진 화려한 화관(花冠)을 쓴 여성의 옆 모습엔 웬지 모를 우수가 담겨 있다. 이어지는 건 상상할 수 있는 여성의 몸 대신 추상적 느낌이 가미된 색다른 모습이다.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미에 주목하며 다채로운 작업들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미를 구축해온 류영도 작가가 오는 3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S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과 배경에 추상 형태를 접목, 구상과 비구상의 만남이 돋보이는 신작 20여점을 전시한다. 흔히 만나는 여성의 누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채로운 몸짓과 표정을 포착하는 작가는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독특한 조형 세계를 구축한 작품을 전시한다.

역동성이 돋보이는 '대지의 꿈'은 여성의 나신과 함께 몸체가 해체된 야생의 얼룩말, 포효하는 동물의 모습 등을 통해 만물의 근원인 대지의 광활함을 보여준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나온 류작가는 지금까지 34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현재 류아트센터 대표, 신형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남도·광주시 미술대



'여인의 향기'

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주문화예술상 특별상, 한국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8-87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북 젊은 작가들 초청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봄맞이 기획전

4월 8일까지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광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오는 4월 8일까지 봄맞이 기획전을 연다.

'화전놀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전남북 젊은 작가들을 초청해 자연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생동하는 다양한 봄의 풍경들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장르는 회화(김수현·박수옥·채정남), 도자기(노신환·이병구), 부채(안태중), 나무그림(지목), 자수(나예심), 만다라(조경옥), 한지(소빈) 등 다양하다.

불구덩이 속에서 도자기 꽃을 피워낸 노신환의 '화화(火花)'는 불이 꽃이 되고, 꽃이 불이되는 자연의 순리를 담아냈으며 쉼 없이 불이 되고, 짙은 일을 반복하는 '잠들지 않는 시간'의 소빈은 어머니의 푸근한 온기로 균형을 잡고 형상을 빚어내고 있다.

그밖에 안태중은 부채 자루에 매화꽃 사랑을 새긴 작품을 선보이며 나예심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만다라 작가 조정



김수현 작 '레몬 여인'

옥은 자연이 주는 형형색색 무늬무상의 이치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410-66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봄날애' 공연 27일 보헤미안 소극장

싱어송라이터 박강수가 봄을 맞아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보헤미안 소극장에서 '봄날애' 공연을 연다.

이번 무대는 박씨의 서정성과 담백함이 묻어나는 봄 노래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그녀만의 맑은 음색은 지친 일상을 정화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선사하며 서정적인 노랫말들은 관객들에게 선물될 것이다. 지난 2001년 '부족한 사랑'으로 데뷔한

박 씨는 '동네 한 바퀴', '나비' 등의 곡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난 음반의 수록곡들인 '바람이 분다'와 '가을은 참 예쁘다' 등의 곡도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포크음악의 대를 잇는 가수'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지만 이제는 통기타, 포크라는 장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은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박 씨는 현재 전국 각 지역에 다니며 300회 이상의 소극장 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100여 곡이 넘는 자작곡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박 씨는 "소극장 공연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서로 응원하고자 한다. 봄 노래 가득한 작은 객석에 화사한 웃음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2-718-348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